

June  
2018

# KEB Hana Market Monthly

-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 연구원 박정온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June  
2018

## 목 차

금리 -----	03
달러/원 환율 -----	05
엔/원 환율 -----	07
유로/원 환율 -----	08
주요 국내경제 지표 -----	09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	09



[www.kebhana.com](http://www.kebhana.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금 리

## 5월 동향 미 국채금리 상승 탄력 완화 속에 한은의 통화완화적 스탠스,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하락

한-미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성향 속 신흥국 위기감 고조

- 5월 초, 5월 FOMC의 금리동결에도 시장금리 상승 영향 및 금통위 의사록의 매파적 성향, 아르헨티나궤 금융위기설 확산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 5월 초, 대내외적 인플레이션 상승 속에 전월 금통위 의사록의 매파 성향 표출과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 개선 가능성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 여기에 5월 FOMC의 금리동결에도 불구하고 통화결정문에 대한 시장의 매파적 해석, 아르헨티나궤 신흥국 위기 우려 등으로 외국인 채권매도 확대

7월 금리인상설이 탄력 받는 가운데 미 소비자물가 부진으로 약보합권 등락

- 5월 중반, 금통위의 7월 금리인상론에 힘이 실리며 국고채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다 미 소비자물가 부진에 따른 국채금리의 상승세 완화에 연동되며 약보합 시현
  - 한은의 매파성향에 따른 7월 금리인상설이 탄력을 받았으나, 주요 금통위원의 완화적 스탠스로 인해 국고채 금리 상단 제한
  - 또한, 미국의 6월 금리인상이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4월 CPI 부진에 따라 국채금리 상승세가 완화되어 국고채금리 약보합 전환에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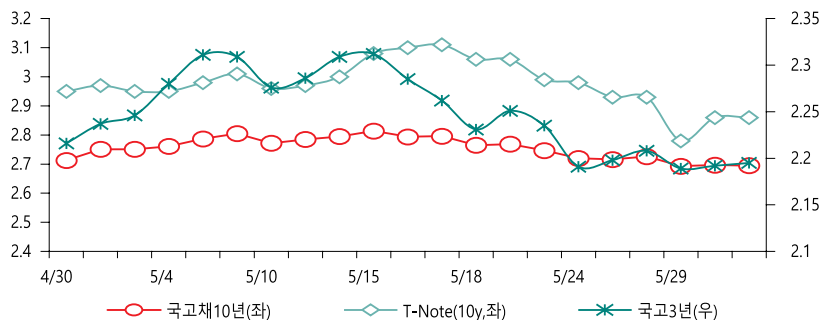
5월 후반, 한은 금통위의 완화적 기조 전환 속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 5월 후반, 금통위의 매파적 경제전망 견지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금리동결과 대외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 지속에 영향
  - 5월 후반, 한은 금통위가 국내경제의 긍정적 전망에도 대외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금리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시장은 금통위 스탠스를 비둘기파적으로 평가
  - 여기에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 및 이탈리아 정치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국고채 금리 하락을 견인

주요 시장금리 추이

5월 평균

국고채(3년): 2.25%  
 국고채(10년): 2.76%  
 T-Note(10년): 2.98%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 6월 전망 국제유가 상승세 완화에도 6월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 및 대내적 경기회복세 약화 등이 국고채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평균	2018. 1Q	2018. 2Q <sup>F</sup>	2018. 3Q <sup>F</sup>	2018. 4Q <sup>F</sup>
국고채(3년, %)	2.24	2.25	2.30	2.40

- 6월 FOMC의 금리인상 결정이 국고채 금리 상승력을 강화하겠지만, 최근 유가 상승세 둔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압력 누적에 따른 미 경제 성장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이 대내외 금리 상승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추가 금리인상이 확정적인 6월 FOMC 결과의 선반영이 국고채 금리 상승 탄력의 주요 대외적 요인이 될 전망
  - 미국 국채금리의 장기적 상승 추세는 유효하겠지만, 최근 유가상승세 둔화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압력 완화가 단기적으로 시장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국고채 금리의 상승 추세도 숨고르기 기간이 될 전망
- 6월 북미 정상회담 기대는 국내 신인도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속에,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은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대내외적 요인 대부분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6/12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공 기대감 강화는 국내 금융경제의 신인도 상승을 통해 외국인 채권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
  - 6월 미국 금리인상 후, 신흥국들의 통화가치 불안감 확대 가능성이 상존한 점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국고채 금리 하락을 강화할 전망
- 미 국채금리의 숨고르기 국면 예상 속에 대내적으로도 고용과 민간소비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통위가 당분간 완화적 스탠스를 견지할 가능성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
  - 국내 4월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가운데 5월 소비자물가도 신선식품물가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5~1.6%대에 그치는 양상
  - 금통위는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경로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음을 강조하며 완화적 스탠스에 무게를 두는 모습. 여기에 KDI도 국내 성장 경로가 올해 2.9%에서 내년 2.7%로 낮아질 수 있음을 경고함에 따른 요인들이 국고채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6월 FOMC 금리결정은 주요 시장금리 상승에 핵심

북미 정상회담과 안전 자산 선호 심리 재개 등이 국고채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6월 국고채(3년) 금리는 2.15%~2.30% 범위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 6월 FOMC 금리인상	· 신흥국 금융불안 재연 가능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 국내 경제체력 약화 속 금통위의 완화적 스탠스 지속 가능성



# 달러/원 환율

**5월 동향** **신흥국 금융불안 및 유로존 정치리스크 등에 따른 강달러 반영속 1,080원대 진입. 그러나 고점인식 네고물량과 대북 긴장감 완화 등이 상단을 제한하는 양상 시현**

5월 초, 미국 행정부 정책에 의한 달러 강세

- 5월 초, FOMC 금리동결에도 달러 강세 반영 속에도 미중 무역협상 결렬,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 협정 파기 등이 위험회피에 영향을 미치며 환율 상승
  - 5월 초, 연준이 5월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을 자신하는 매파적 위원들 성향이 반영된 달러 강세 흐름 속에 달러/원 환율은 상승 출발
  - 이어 미국의 對이란 핵협정 파기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대북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환율은 강한 되돌림 나타내며 하락 전환

미국 국채금리 3%대 돌파 속에 연준의 매파적 성향 강화

- 5월 중반, 미 소비자물가의 부진에 달러 약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났지만, 이내 미국채 금리 급등 양상 및 연준위원들의 매파 성향 시사에 1,080원대 돌파
  - 미국 CPI의 부진에 달러 약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후, 이어 미 국채금리 3.1% 도달 및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성향 시사 등으로 환율은 1,080원대 상향 돌파
  - 남북 고위급회담 불발 및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공개 발표에 따른 미세조정 약화 가능성도 대내적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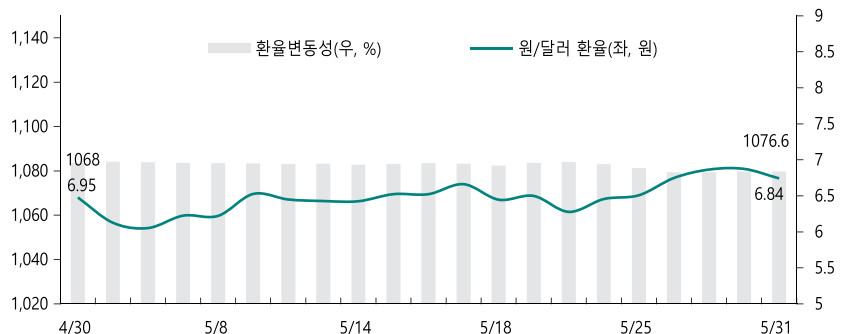
미국 보호무역 재점화 속에 유로존 정치리스크 확대

- 5월 후반, 미국 자동차 수입 관련 무역분쟁 재점화 속에 북미 정상회담 불확실성과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 등으로 위험회피심리 강화되며 1,080원대 지속
  - 5월 후반, 연준의 비둘기파적 의사록 공개 후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련 무역분쟁 재점화 영향과 유로화, 엔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치며 환율 상승을 견인
  - 여기에 이탈리아 정치리스크 등 남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까지 더해지며 환율은 전월 대비 8.6원 상승한 1,076.6원으로 마감

5월 달러/원 평균환율 : 1,068.1원

5월말 달러/원 환율 : 1,076.6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 6월 전망 북미 정상회담의 긍정적 기대에 따른 원화 강세 가능성에도 미 금리인상, 상존한 대외 불확실성이 위험회피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소폭 상단을 높여갈 전망

평균	2018. 1Q	2018. 2Q <sup>F</sup>	2018. 3Q <sup>F</sup>	2018. 4Q <sup>F</sup>
달러/원 환율(원)	1,072.3	1,070	1,075	1,080

- 북미 정상회담의 긍정적 기대가 지정학적 불안을 완화하며 대내적 신인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원화강세에 대한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
  - 6월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 노이즈가 있었으나, 회담성과에 대한 시장 기대의 긍정적 측면이 원화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회담 핵심인 비핵화 부분이 이제 첫걸음이라는 점에 비춰 향후 추가 협상 여지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등으로 원화강세에 대한 파급효과는 제한될 전망
-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저에 국내 경제 회복의 약세가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한미 금리차 확대가 외국인 자본 유출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며 환율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 연준의 5월 FOMC 의사록은 온건한 스탠스를 보였으나, 6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 미국경제의 성장과 물가상승 등의 회복력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
  - 반면, 대내적 고용 및 물가 상승세가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반기 한은의 긴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한미간 금리차 역전 현상 확대가 점차 영향력을 키우며 외국인 자금 유출을 확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전망
- 6월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상존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심리 강화가 대북리스크 완화를 압도하며 상단을 소폭 높일 전망
  - 6월은 미국 금리이슈 외에도 유로존 정치불확실성,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과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이 대외적 악재로 작용하며 원화 약세 영향 요인이 우위를 보일 전망
  - 반면 상기 대북리스크 완화 요인이 월초 상단을 제한하는 가운데 환율 급등 시점에 여전히 수급 우위인 네고 요인 또한 상승을 제한하겠지만, 환율은 1,070원~1,090원 범위로 상단을 소폭 높여갈 전망

북미 정상회담의 원화강세에 대한 기대는 추가 협상 여지 등으로 제한될 전망

한미 금리차 확대는 외국인 자본 이탈을 견인할 전망

5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70원~1,090원 전망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누적된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의한 6월 추가 금리 인상</li> <li>·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조짐</li> <li>· 유로존 정치리스크</li> <li>·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 상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 회담에 따른 대북리스크 완화</li> <li>· 1,080원대 중반에서의 수출 관련 달러 매도 확대 가능성</li> <li>·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약화 가능성 (외환시장 개입 공개 정책 영향)</li> </ul>

# 엔/원 환율

## 5월 동향 월 중반까지는 미국 긴축 전망 영향권에서 엔화 약세 시현하였으며, 월 후반 들어 엔화는 글로벌 경기 및 정치 불확실성에 강세 전환

엔/원 환율 전월대비 16.3원 상승한 991.6원에 마감

- 미국 긴축 우려 완화에 엔화약세 진정되는 듯 했으나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엔/원 환율 하락. 이후 글로벌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상승 전환
  - 월 초, 이란 핵 협정 탈퇴 소식으로 강화된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연준의 완만한 금리인상 경로 전망 등에 엔/원 환율 상승. 이후 유가 급등에 따른 미 국채 금리 3%대 재진입으로 엔화가 약세 전환되며 엔/원 환율 하락 견인
  - 월 중반, 미-일 금리차 확대가 지속된 가운데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긴축 가속화 전망으로 엔/원 환율 추가 하락
  - 월 후반, 신흥국 경기 불안 및 이탈리아 정치리스크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재개되며 엔/원 환율 상승 전환

## 6월 전망 미-일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엔화 약세 전망 속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달러/엔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엔/원은 6월 FOMC의 금리인상에 따른 엔화 약세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달러/엔 환율 상승 전망

- 6월 FOMC 금리인상이 달러/엔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6월 FOMC 금리인상으로 인한 미-일 금리차 확대가 달러/엔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도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여전히 낮은 유로화 전망 및 신흥국 경기 불안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재개 가능성이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엔/원 환율 하락 후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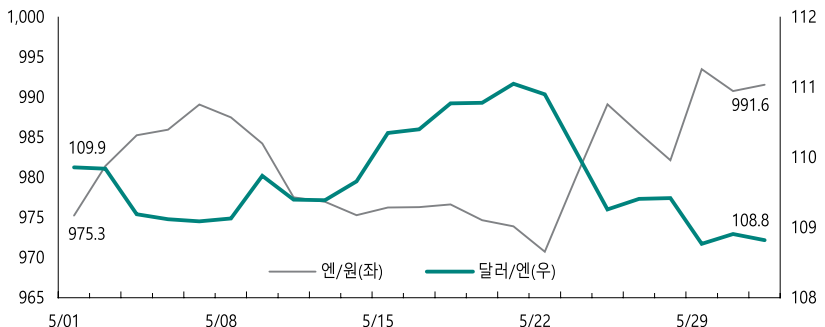
- 미-일 정책 차별화 부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엔/원 환율 하락이 예상되나 신흥국 불안 확산시 안전자산 선호 재개되며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상존
  - 6월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미-일 금리차 확대 속 엔화 약세와 북미 정상회담 기대에 따른 원화 강세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통화 가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하며 환율 하락을 제한할 여지도 상존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5월 달러/엔 평균 환율 : 109.7엔

5월 엔/원 평균 환율 : 981.7원

6월 엔/원 예상 범위 : 950원~1,00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 유로/원 환율

## 5월 동향 부진한 경제지표 속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 확대, 伊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정치·경제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이 유로 약세 견인

-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 및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가 유로/원 하락을 견인
  - 월 초, 연준 및 ECB 통화정책회의 전후 정책 차별화에 주목하며 유로 약세 시현. 유로/달러는 1.20달러 하회하였으며 유로/원 역시 하락. 이후 伊 연립 정부 협상 불발 소식이 더해짐에 따라 유로화는 추가 약세
  - 월 중반, 미국채 금리 3% 재돌파 및 伊 연정구성 협상초안 내용 중 유로존 이탈 및 국가부채 탕감 등이 포함되면서 유로/원 추가 하락 견인
  - 월 후반, 유로존의 부진한 경제지표와 伊 대통령의 내각구성 거부 결정에 따른 총리 사퇴 등 정치 불확실성에 환율 하락 추세 지속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35.8원 하락한 1,257.3원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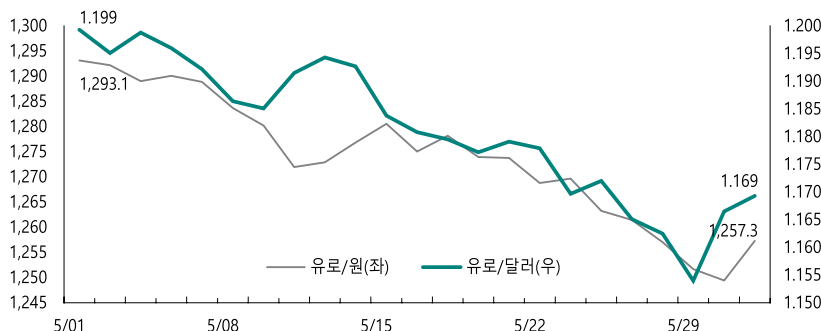
## 6월 전망 유로존 경기 둔화, 정치 리스크 등 유로 약세요인 지속되나 유로화 저가 매수세 및 정치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이 강세전환을 견인할 전망

- 유로화 저가 매수세가 유로/달러 환율 상승전환을 견인하나, 유로존 펀더멘털 약화 및 정치 리스크가 상승을 제한할 전망
  - 유로화 저가 매수세, 伊 정치 불확실성 해소 및 9월 종료 예정인 QE에 대한 ECB의 테이퍼링 시사 발언 가능성 등으로 유로/달러 상승전환 예상
  - 다만, 유로존 경제지표 둔화 및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부각된 유럽 정치 리스크, ECB 통화 완화정책 유지 가능성 등 펀더멘털 측면의 유로화 약세요인은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 유로/원 환율도 유로화 저가 매수세로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기대에 따른 하방압력이 상승을 제한할 전망
  - 월 초 유로화 저가 매수에 따른 반등이 유로/원 상승을 견인할 전망
  - 그러나 여전히 부진한 유로존 경제지표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속 원화의 차별화된 강세가 유로/원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유로/달러는 저가 매수세에 따른 상승전환 예상되나 상승세는 제한적일 전망

유로/원은 제한된 상승 예상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5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81달러

5월 유로/원 평균환율 : 1,273.9원

6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235원~1,29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순환변동치, %

항 목	2017년		2018년			
	연간	4/4	1/4	3월	4월	5월
전 산업 생산	2.3	-0.7 [-0.2]	0.7 [0.3]	-0.6 [-0.9]	2.0 [1.5]	
제조업	1.6	-4.8 [-1.1]	-2.9 [-1.3]	-4.4 [-1.9]	0.7 [3.5]	
서비스업 생산	1.9	0.9 [0.2]	2.5 [1.0]	2.3 [0.4]	2.6 [0.0]	
소매판매액	1.9	2.1	5.0	7.0	5.3	
설비투자	14.1	2.0	9.3	-0.1	0.6	
건건설기성액	10.1	-0.5	1.6	-5.4	1.4	
경기선행지수	-	-	-	100.4	100.0	
실업률 (%)	3.7	3.2	4.3	4.5	4.1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1.3 [-0.1]	1.6 [0.1]	1.5 [0.1]
경상수지 (억달러)	-	-	-	51,804		
상품수지 (억달러)	-	-	-	98,760		
수출증감률(통관기준)	-	-	-	6.1	-1.5	13.5
수입증감률(통관기준)	-	-	-	5.2	14.5	12.6
금리(국고채3년, 월평균)	-			2,268	2,190	2,246
KOSPI (월말)	-			2,445.9	2,515.4	2,439.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증권거래소

##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단위: 원

	2017.12	2018.1	2018.2	2018.3	2018.4	2018.5
미국 USD	1,070.6	1,067.8	1,083.1	1,063.6	1,068.2	1,077.8
일본 JPY(100)	946.8	979.0	1,016.4	999.7	978.1	991.6
유로 EUR	1,276.1	1,328.6	1,324.3	1,309.4	1,295.3	1,257.3
영국 GBP	1,442.9	1,518.7	1,493.3	1,487.5	1,473.9	1,436.7
중국 CNH	163.2	169.3	171.1	169.7	169.2	168.4

주 : CNH는 서울외환시장 월말 증가 기준, 그 외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뉴욕시장 월말 증가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18.6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b>1</b> 韓 GDP 한 GDP 1Q[F] (2.8, YoY) 5월 무역수지 (\$6,611.0M) - 수출/수입 (-1.5%/14.5%, YoY) 5월 CPI(1.6%, YoY) 중 5월 Caixin 제조업 PMI(51.1) 독 5월 Markit 제조업 PMI[F](56.8) 유 5월 Markit 제조업 PMI[F](55.5) 미 5월 Markit 제조업 PMI[F](56.6) 4월 건설지출 (-1.7%, MoM) 5월 ISM 제조업지수 (57.3)	<b>2</b> ≡6/1 계속 미 5월 고용통계 - 실업률(3.9%) - 비농업부문고용 자수변동(164K) - 시간당평균임금 (0.1%, MoM)
<b>3</b>	<b>4</b>	<b>5</b> 豪 RBA	<b>6</b> 현충일	<b>7</b>	<b>8</b>	<b>9</b>
	유 4월 유로존 PPI (0.1% MoM, 2.1% YoY) 미 4월 제조업수지(1.6%) 4월 소매판매 (0.0%, MoM)	한 5월 외환보유고 (\$398,42B) 4월 경상수지 (\$5,180.4M) 중 5월 Caixin 서비스/종합PMI(52.9/52.3) 호 RBA 기준금리(1.50%) 독 5월 Markit 서비스/종합PMI[F](52.1/53.1) 유 5월 Markit 서비스/종합PMI[F](53.9/54.1) 미 5월 Markit 서비스/종합PMI[F](55.7/55.7) 5월 ISM 비제조업지수 (56.8) 4월 무역수지(-\$49.0B)		중 5월 외환보유고 (\$3,124,85B) 5월 무역수지(\$28,78B) - 수출/수입 (12.9%/21.5%, YoY) 독 4월 공장수주(-0.9%, MoM) 미 4월 소비자신용지수 (\$11,622B)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일 4월 경상수지(₩3,122.3B) 독 4월 산업생산[SA] (1.0%, MoM) 미 4월 도매재고[F]  G7 정상회의(~9)	중 5월 CPI/PPI (1.8%/3.4%, YoY)
<b>10</b>	<b>11</b>	<b>12</b> 美 FOMC[~13]	<b>13</b> 지방선거	<b>14</b> ECB 통화정책회의	<b>15</b> BOJ 금정위[14~15]	<b>16</b>
	일 4월 핵심기계수주 (-3.9% MoM)  5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일 5월 PPI(2.0% YoY) 독 6월 ZEW 경기기대지수 (-8.2) 유 6월 ZEW 경기기대지수 (2.4) 미 5월 재정수지(\$214.3B) 4월 CPI/Core (0.2%/0.1%, MoM) (2.5%/2.1%, YoY)  북미정상회담	유 4월 유로존 산업생산 [SA](0.5%, MoM) 미 FOMC 기준금리 (1.75~2.00%) 5월 PPI/Core (0.1%/0.2%, MoM) (2.6%/2.3%, YoY)	일 4월 광공업생산[F] 독 5월 CPI[F] 유 ECB 기준금리(0.00%) 미 5월 수출/수입물가 (0.6%/0.3%, MoM) 5월 소매판매(0.3%, MoM)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일 BOJ 기준금리(-0.10%) 한 5월 실업률[SA](3.8%) 유 5월 유로존 CPI(0.3% MoM, 1.2% YoY) 미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P] 6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20.1) 5월 광공업생산 (0.7%, MoM)	
<b>17</b>	<b>18</b>	<b>19</b>	<b>20</b>	<b>21</b>	<b>22</b>	<b>23</b>
	일 5월 무역수지(₩626.0B) - 수출/수입 (7.8%/5.9%, YoY)  ECB 연례 중앙은행포럼 [~20]	ECB's Lane and St. Louis Fed Bullard speak in Sintra, Portugal	한 5월 PPI(1.5%, YoY) 독 5월 PPI(2.0%, YoY)  Draghi, Lowe and Powell speak in Sintra, Portugal	미 6월 필라델피아연준 경기전망(34.4) 5월 경기선행지수(0.4%) 4월 FHFA 주택가격지수 (0.1%)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일 5월 CPI(0.6%, YoY) 독 6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유 6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미 6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OPEC 정기총회	
<b>24</b>	<b>25</b>	<b>26</b>	<b>27</b>	<b>28</b>	<b>29</b>	<b>30</b>
	독 6월 Ifo 기업환경지수 (102.1) 미 5월 시카고연방 국가활동 지수(0.34) 6월 델러스연준 제조업지수 5월 신규주택매매 (662K, -1.5%, MoM)	미 6월 리치몬드연방 제조업지수 4월 S&P/CS 20도시 주택가격 6월 컴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일 5월 소매판매[P] 미 5월 기준주택매매 5월 내구재 수주[P] - 운송제외 - 항공기제외비국방자본재수주 5월 도매재고[P]	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제조업/비제조업 독 7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10.7) 6월 CPI[P] 미 5월 개인소비 1Q GDP 연간화 QoQ[S]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U 정상회담[~29]	일 5월 광공업생산[P] 미 5월 개인소득 6월 시카고PMI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F]	중 6월 제조업/비제조업/종합 PMI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 ) 안은 이전치



## KEB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KEB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FAX 729-01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KEB하나은행 외환포탈 ([www.kebhana.com](http://www.kebhana.com) → 외환포탈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